

## 리서치팀

☎ 82-2-3774-0451

## 1. 통화전망

## (1) 달러/원(선물)

예상 레인지: 1,095원~1,110원

방향성: 약보합

금주 달러/원은 월말 네고 물량과 증시에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기대감 이어지며 글로벌 달러 약세에 약보합권 등락을 전망. 다만 미중 간 갈등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에 위안화가 하락세를 되돌리고 점은 하단 지지 요인. 지난 주 후반 중국 상해와 베이징에서 코로나 19 확산세 뉴스가 이어지며 신흥국 위안화 환율이 하단을 확인하고 급등하는 모양새 이어졌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공화당의 일부 중도파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을 비판하고 있는 점도 신흥국 통화 약세 요인. 신규 부양책이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중도파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의 부양책 반대 소식은 환율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음.

## (2) 유로/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1.2000~1.24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유로/달러는 1월 FOMC(26~27일)에서 파월 의장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테이퍼링 도입 가능성을 일축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달러 약세에 연동해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일부 연준 인사들이 물가 리스크와 테이퍼링 등을 언급하며 파월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완화정책 지속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날 애플과 페이스북, 테슬라 등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호조와 함께 뉴욕증시 급등할 경우 금융시장 위험선호심리 물러나 달러화 약세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임. 다만 ECB가 지난 통화정책 회의에서 강 달러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영국 발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며 봉쇄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유로화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3) 엔/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0.95000~0.980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엔/달러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와 FOMC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에 연동해 강보합 전망. 금주 FOMC(26~27일)에서 파월 의장의 완화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 내비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채 금리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달러화 약세 흐름 지속되며 엔/달러 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만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 요인. 엔화도 안전자산벤치마크 통화로 활용되었으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위험회피경로로는 달러화가 엔화보단 유효한 모양새.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찾아들지 않는 코로나 19 확산세는 달러화 하단을 지지하며 엔/달러 강 보합권에서 방향성 탐색 이어질 것으로 보임.

## 2. 지수전망

### (1) S&P500(선물)

예상 레인지: 3,400~3,850 pt

방향성: 강보합

금주 뉴욕증시는 27일 예정된 2021년 첫 번째 FOMC 통화정책 회의와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며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넷플릭스 등 최근 주요 기술주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순익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미국 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애플 등 핵심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증시에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술기업 주가 고평가 논란에도 실적이 이를 뒷받침 할 경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있을 수 있음. 26~27일간 이어지는 FOMC통화정책회의에서는 정책금리 동결이 예상되나 최근 논란인 국채금리와 인플레이션 상승, 출구전략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

## 3. 상품전망

### (1) WTI(선물)

예상 레인지: 47~55.00 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WTI(국제유가)는 중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지역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 약보합 전망.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수요 증대 기대감과 미국 전통 에너지 산업 규제를 통한 원유공급 감소 우려는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 시작 이후 세계 원유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수입량을 늘리며 아시아 내 수요 증가를 주도한 중국 내 상해와 북경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내달 춘절 연휴를 맞이해 민족 대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 지역 봉쇄 가능성은 유가 하락 요인. 또한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원유 가격에 부담.

### (2) 골드/실버(선물)

예상 레인지: 1,850~1,940USD

예상 레인지: 24.00~30.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금 가격은 주요국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FOMC통화정책 회의에서 완화적인 정책기조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달러 약세 가능성에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공화당 중도파 의원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드러나며, 부양책이 원만하게 통과될 가능성은 약화된 상황. 또한 금주 미국 주요 기술주의 실적 호조 가능성과 미국 20년도 4분기 GDP 지표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금융시장의 위험선호심리를 자극해 금 가격 상단을 제한할 요인.

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http://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